04
2017
통권 569호

할렐루야

Hallelujah News

2017 표어

주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시편 90:17)

성지순례길에서 보내온 목자의 편지 04면

부활 – 십자가의 완성

| 신현규 목사(신문팀 담당 목회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로마서 4:25)

이번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4:25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의아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였는데, 즉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 되었으면 의롭게 된 것일 텐데 왜 또 굳이 부활이 있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제사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야 하고 제물도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만일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제사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증거로 제사를 담당하던 제사장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모두 마치고 살아 나와야 그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야 모든 죄 용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고 제사장은 살아 나와야 하는 것이 제사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하고 유일한 화목제물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제물로서는 죽어야 하지만, 대제사장으로서는 살아나셔야 완전한 제사가 되고 그래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제물은 실패한 것이 되고 부활을 하셔야 십자가의 의미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그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며, 더욱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CONTENTS

할렐루야교회
창립 1980. 11. 16

표지사진 5층 옥상 야외 벽화

Hallelujah News 할렐루야신문사
1987년 5월 10일 창간
우)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전화 031-780-9583 **간사** 010-6416-7030
e-mail news@hcc.or.kr

발행인 김승욱
지도목회자 신현규
담당장로 김관상
팀장 여은구
총무 마준호 회계 이은경
편집간사 지현아 디자인간사 김효진
신문위원 노신영 심희수 이영림 진주희
최은주 한정훈 황승국
교정 김학주 임홍균
4월호 담당 최은주

사진 사진팀 지준정

할렐루야교회 신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권두언	부활 - 십자가의 완성	02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목자의 편지	04
테마기획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06
기획연재	성경 한눈에 보기 (4)	08
기획	부활 신앙	09
현장취재	제4회 원코리아연합기도	10
간증	기도는 사랑이다	11
	천국의 소망, 새로운 출발	12
	병상일지	14
선교	복음으로 인도하는 진중세례식	15
	2017해외선교헌신주간 리포트	16
	캄보디아에서 만난 할렐루야교회 버스	17
우리교회 방방곳곳	의료선교	18
소개	예배하는 우리집	19
뉴젠	이제는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20
	2017 SP를 기대하며	21
문화	기독교인의 책읽는 습관	22
	이달의 추천도서	23
젊은이공동체	강동원 유승호 신경희에게 배운 Re:create	24
신앙문예	살아나심의 은총	26
사랑방 소개	부부사랑방	27
파랑새광장		28
문화	기획 초대전, 마할로 하와이	31
	루야톡톡	32
성경퀴즈	성경퀴즈	33
새가족	4월의 새가족	34
Art 에세이	오늘도 괜찮아	35

할렐루야교회는

☐ **존재 목적(Mission Statement)**

할렐루야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glorify God by exalting Jesus Christ.)

☐ **비전 (Vision)**

'평신도를 일으키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

홈페이지 www.hcc.or.kr **전화** 031) 780-9500

목자의 편지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저의 안식 기간이 시작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네요. 참으로 그리운 여러분들입니다. 그동안 나라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요.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은총의 손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안식 기간이 시작되고 지난 한 달간의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장 먼저 3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원코리아연합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분당지구촌교회에서 '연합과 선교'라는 주제로 열렸지요. 무엇보다도 네 번의 모임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하나 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역 가운데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역을 중심에서 맡아 섬기는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3월 3-6일까지는 몽골 할렐루야교회와 아가페 병원을 다섯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페 병원은 2008년도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의료 시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실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호스피스 사역과 신장 투석을 위한 의료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두 분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더 나아가 이 사역을 위해 협력하고 싶어 하는 다른 교회들과 단체들을 더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격스러웠던 일은 우리 팀이 도착하던 날, 몽골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아가페 병원이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요사이 몽골의 선교 현황은 선교 사역들이 점점 더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들의 경우에 종교 비자를 갱신받지 못해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7년 전, 몽골로 부름을 받고 이 꿈의 시작을 감당하신 고(故) 박돈상 장로님의 헌신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섬겨 오신 이영숙 권사님과 얼마 전 은퇴하시고 돌아오신 이홍주/김영숙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 아가페 병원

몽골할렐루야교회는 우리들의 헌금과 기도로 2010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원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육신을 치료하고 교회를 통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몽골의 공동체는 아담하면서도 중심이 있는 공동체로 느껴졌고, 특히 3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그 교회를 섬겨주셨던 이호희/김미향 선교사님과 정규환/배계연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자리를 지키며 봉사해 오신 지미연 선교사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일어난 아가페 병원과 함께 몽골 할렐루야교회가 시너지를 이루어 비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몽골 할렐루야교회

3월 16-24일 동안에는 꿈과 같았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총 93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내외에게는 이번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첫 케이스였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들었던 폭포 소리,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와 시온을 적시는 물결, 오래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았던 느보산, 다윗의 도성으로 우뚝 서 있는 예루살렘, 바울이 복음전파를 위해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가이사에게 가기를 자청했던 가이사랴 항구... 그동안 성경에서 상상으로만 접했던 곳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호흡과 발자취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직접 걸어보며 함께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음을 이번에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고, 베드로의 살아있는 신앙고백을 들으시며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교회이구나!' 음부의 권세가 들끓고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고백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로 거뜬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곳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머무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이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보고 따랐고 자신들의 희망을 위해 좇았지만, 주님을 보고 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보며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시려고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곳은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곳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조용히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지순례_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 맞고 피 흘리시며 걸으신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에 가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상 가서 보니 온 주위가 그렇게 소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줄을 서서 무엇인가를 판매하고 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와서 우리와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던 그날에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 모욕의 말을 던집니다. 그날의 상인들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건 팔기에 바빴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그들 안에서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진정 알고 있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 영광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며 삽시다.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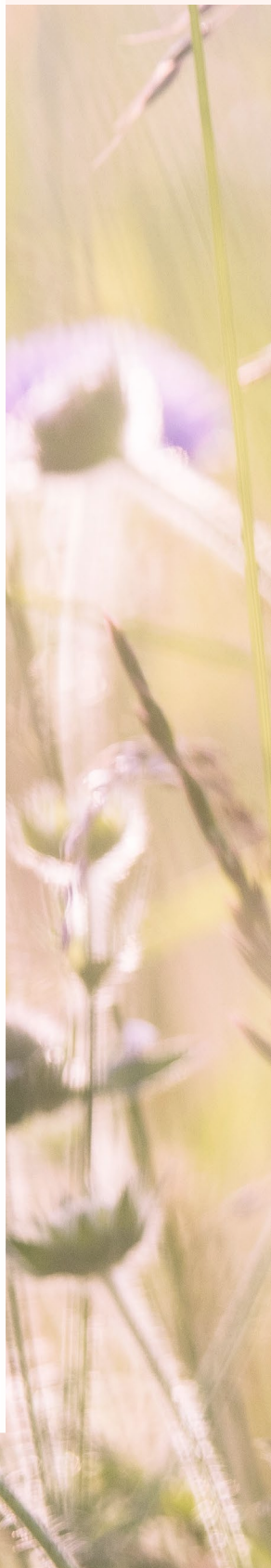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성지순례_단체사진

김승욱 목사 드림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

| 이미희 집사(1교구)



언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난생처음이라 먼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수년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언니에게로부터 많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 거 같아.

이제 어느덧 모든 만물이 소생하며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이 왔네? 지난 겨울은 날씨도 몹시 추웠고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 언니의 암 진단과 수술 과정들이 언니와 내게 절망과 두려운 시간이었어. 난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돌보심,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언니의 절망과 우울, 기쁨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이 내게는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

그동안 나는 언니의 삶이나 회사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해는 되었어.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이 없고 세상의 부를 좇는 언니의 생활이 늘 안타까웠어.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서 내 기도제목은 언니가 신앙을 되찾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런 기도제목들이 뜻밖의 언니의 암 진단으로 응답이 된 것만 같아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의 기도와 평안 없이, 눈물만 흘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시간을 보냈지.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언니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해서 벌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 켠에 자리 잡았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 무섭고 냉정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 또한 실망과 두려움으로 기쁨, 소망, 평안이 없는 시간을 보냈어. 게다가 의사의 '위 전 절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항암 치료 과정이 힘들 수도 있다' 는 설명들이 언니를 또 한 번 절망과 슬픔으로 이끌었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위로 목사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음으로 언니와 나에게 평안과 감사기도를 하게 했고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간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 수술 결과 위를 절제 안하고 암세포가 아주 악성은 아니어서 항암치료도 약으로 먹는 치료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희망적인 말에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일을 주관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왔어!

언니! 우리가 지난 1월에 새벽예배에서 흘린 눈물과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 언니! 지금 나는 언니가 신앙생활을 되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고백하는 언니의 모습이 정말 기뻐!

언니,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볼 때는 성공과 부귀와 명예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삶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다시 새롭게 살게 된 언니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자! 내 앞의 많은 시련과 언니의 투병생활이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드심을 믿으며 능히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가리라 믿어!

언니, 다시 한 번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언니가 늘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언니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심에 감복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해!

언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파이팅!!!

- 사랑하는 동생 미희가 -

성경 한눈에 보기 (4)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한눈에 보기 (2)

| 백명렬 목사(8교구 담당)

1.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황			
시내산	가데스 행	모압 행	모압 도착
1장-10장	10장-14장	15-20장	20장-36장
출발준비	국가적 실패	광야 방황	정복 준비
2개월 간	4개월 간	38년 간	수 개월 간
시내산		호르산	느보산

❶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

인구조사(1, 26장) - 모세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레위인들을 제외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 603,550명, 시내산(민1:46), 1세대 대상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 - 601,730명, 느보산(민26:51), 2세대 대상

❷ 국가적 실패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지만 신앙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열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명의 정탐꾼의 말에 낙심되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맙니다.

2. 신명기

40년간의 방황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The Second Law)입니다. 신명기(新命記)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장-4장	5장-26장	27-34장
과거 - 역사적 조명	현재- 법률적 조명	미래 - 예언적 조명
기억하라		

❶ 첫 번째 설교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지나온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살라"고 간절히 권고합니다.

❷ 두 번째 설교

① 십계명의 재천명 -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② 쉐마(6장) -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이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마22:37-40).

❸ 세 번째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축복과 저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모든 나라 위에 높이 세워주시겠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죽음 - 모세는 120살에 느보산의 비스가 정상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숨졌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 고대영 목사(6교구 담당)

부활 신앙은 세상에서의 미래보다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가복음 16:1)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향품은 시신이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사(葬事)하기 전에 시신에 바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절차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향품을 사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 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인들은 불필요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인간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벌은 이 땅의 인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내린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찾아야 끝이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첫째, 인간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이며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라는 첫 번째 답을 찾은 천사는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구두장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건장한 체구의 청년이 튼튼한 가죽 신발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가죽 신발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듭니다. 슬리퍼를 거의 다 만들어갈 즈음 청년의 하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주인이 죽었으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는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하인에게 전해 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천사는 하나님이 내린 두 번째 질문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앞일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앞날을 대비해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준비 목록을 다시 검토해 보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예수님처럼 부활한 새 육신으로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더 오래 머물 영원한 처소에서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 4회 원코리아연합기도 개최

제 4회 원코리아연합기도가 삼일절 98주년 기념일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근처 지구촌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연합기도회는 오전 11시 35분 할렐루야교회 찬양팀의 찬양이 올려지는 가운데 '행사 오프닝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지구촌교회의 찬양팀이 무대에 올라가서 오프닝 찬양을 담당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교회 김승욱 목사의 개회인사가 이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오프닝 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기도드렸고 오로지 찬양과 기도로 온 힘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그 뒤 케네스 배 선교사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735일 동안의 북한 억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미국 핵보다도 예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북한 간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배 선교사는 "평양에 사는 북한 사람들이 평생 예수 이름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사실을 알고 평양 대부흥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윤회 목사와 정혤렌 간사 등이 기도와 찬양을 인도했고 북한에서 탈출한 김영호 형제의 간증이 이어졌다. 김영호씨는 중국과 태국 등을 거쳐 2003년 남한으로 와서 09학번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역경을 잘 이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탈북 동포'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구체적인 관심을 부탁했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초임을 강조했다.

전체를 위한 마무리 기도와 축도는 지구촌교회의 진재혁 목사가 담당했다. 이날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는 지구촌교회와 할렐루야교회, 한국중앙교회 등 1,900여 명이었다. 온전히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께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현장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노년층 성도들도 적지 않게 참석했다.

제 5회 원코리아연합기도는 오는 10월 14일 선한목자교회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김관상 장로(미디어팀 담당)

기도는 사랑이다!

| 장승연 집사(9교구)

얼마 전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다.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사랑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만을 그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코리아연합기도를 통해 알게 해주셨다.

원코리아연합기도가 있는 삼일절이나 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놀러가기 딱 좋은 날이다. 어떤 모임이든 주제가 중요한데 원코리아연합기도는 1회부터 4회까지 참석할 때마다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제목들이 주제로 올라왔다. '회개와 회복', '용서와 화해', '치유와 부흥', '연합과 선교'. 기도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출석체크를 하는 사람도 없기에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제목이 있는 포스터를 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놀러가고 싶은 마음을 매번 누르고 또 누르며 기도회에 참석했다.

참석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기도회 제목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난감했지만 원코리아연합기도 때마다 기도의 방향성을 인도자들이 제시해 주시고 기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들은 내 마음을 녹였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 나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복음통일 과정을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며 앞으로 행하실지 기도와 간구로 바라보게 하셨다. 또한 주님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님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하셨다. 또한 이 마음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따라온 유아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원코리아연합기도는 개인이 아닌 주의 자녀로 하나 되어 한반도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느끼며 기도하는 자리였다. 그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기도회에 참여하는 나도 6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흘러갔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노래하며 보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북한 땅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뜨는 자리에 있기를 기대한다.

제 5회 원코리아연합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천국의 소망, 새로운 출발

| 김형주 집사(7교구)

저는 이번 새소명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새생명반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새소명반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당시 계획은 내가 먼저 훈련을 받고 다음 해에 아내가 이어서 새생명반 훈련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아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며 연말을 보내던 중 우리집에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해 마지막 검진에서 기존의 유방암이 재발이나 전이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완치되는구나 하는 희망에 젖어 있던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도 갑작스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예후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 가족은 특히 아내는 다시 한 번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꼭 치료를 이겨낸 다음에 제자훈련을 받겠다고요. 그런 아내를 사랑방장님께서는 "집사님이라면 꼭 이겨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간증해 주실 겁니다."라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한 번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지 처음의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별 탈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조혈모세포 이식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식받고 퇴원한 지 한 달 뒤 아내의 상태는 나빠졌고 결국 다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석 달, 다들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아내는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렸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혼수상태였는데 갑자기 본인 스스로 호흡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와 사진 속의 아이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둘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위해서 기관절개술을 하고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아내는 저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 같았고 기도가 끝나자 웃으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의식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갑작스럽게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아내는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몸에 삽입된 각종 도관을 직접 제거한 뒤 서류처리를 위해서 잠시 나갔다 오니 어느새 장례식장으로 데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를 마친 아내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에 죽음은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은 못했지만 아내는 분명하게 중요한 숙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제자훈련을 마쳐 달라고요. 그렇기에 훈련은 저 혼자만이 아닌 저와 아내가 함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새소명반 신청서에 있던 배우자 동의 서명란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내는 미리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셨던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요.

이번 새소명반 훈련 기간 동안에는 성경통독과 성구 암송 외에 다른 책들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오히

새소명반 동기들과 함께, 김형주 집사(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려 원래의 숙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뺏기기도 했지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전 같았으면 읽지도 못했을 책들을 접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설교시간마다 기독교는 단순한 교리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강조하십니다. 제자도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새로이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한 제자로서 나의 스승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에서 무엇을 바라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고 동시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책들보다도 중요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예 습관화시키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은 저의 신앙의 선배였던 집안 어르신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제 생활 속에서 저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사랑방에서는 다음 번 방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섬기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길로 빠지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지난 3년만큼 값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그분께서 저와 저의 가정의 앞길을 항상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원로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근본이라 하셨는데 그러한 근본을 지키는 가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이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의 자세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제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Jehovah Rapha
모든 치유와 궁극적인 회복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사야 58:8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이며 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는 가장 소중한 이들의 숙명적인 아픔과 고통 앞에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그들에겐 전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은 물론 교우들의 큰 관심과 사랑의 기도 또한 필요하다.

한 예로, 3년여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장삼진 권사(4교구)의 남편 이강우 안수집사의 10여 페이지에 이르는 눈물의 병상일지는 우리들 크리스천의 고뇌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6)',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같이 병들고 약한 자에게 실천하는 교우들, 특히 4교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4교구 천사들 덕분에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잘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생명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지금은 광주에 있는 종합 병원에서 치료보다는 완화 및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김승욱 담임목사님 일행은 장삼진 권사를 포함한 환우들을 심방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들도 중보기도를 통해 그들 환우들과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을 체휼(體恤)하고 위로하는 회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궁극적인 천국의 축복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픈 몸과 영혼을 만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린다.

황승국 집사(신문위원)

3월 29일 장삼진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는 진중세례식

'이기자'부대(강원도 화천 27사단) 신병교육대를 다녀와서

| 최영태 집사(선교공동체 군선교팀장)

"왕, 왕, 왕왕 각.개.전.투 왼발, 왼발, 왼발 포.상.휴.가"

젊은 군인들의 열띤 찬양과 힘찬 추임새가 큰소리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난 2월 25일 할렐루야교회 군선교팀이 섬기는 강원도 화천 27사단 신병교육대 '이기자'부대교회에서 진중세례를 앞두고 젊은 군인들이 앞으로 나와 힘 있는 찬양과 율동을 드렸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경험했을 겁니다. 합동 세례식인 진중세례는 군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첫 관문입니다. 장엄한 진중세례식이 열리기 전, 풀쩍풀쩍 뛰며 찬양하는 장병들이 매우 기특하고 대견해서 우리 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찬양하는 장병들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기뻐 뛰었던 다윗이 연상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입니다.

할렐루야교회 군선교팀 45명이 교회를 출발한 시각은 2월 25일 오전 9시. 2시간 반쯤 달려 도착한 곳은 6.25 한국전쟁 때 중공군 3개 사단이 점령했던 사창리를 국군 9사단이 탈환한 기념으로 세운 사창리 전투 전적비였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라 사랑, 예수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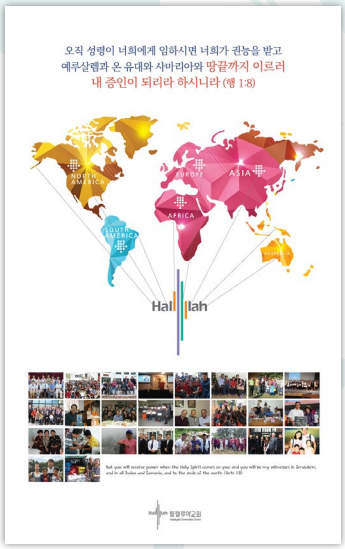
드디어 '이기자'부대에 도착해, 부대 내 회관에서 군종사병 10여 명과 오찬을 즐긴 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는 독립교단연합회 군선교 위원장 이번생 목사님이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경험과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주제로 복음의 핵심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박창규 은퇴 안수집사님과 정희연 원로권사님 등이 준비한 '오카리나, 하모니카 찬양 연주'를 듣고 난 후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중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세례식에 나온 신병은 모두 58명, 우리 모두 이들이 21개월 뒤 전역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병영생활을 잘하도록 축복하고 김관상 장로님의 인도 아래 기도드렸습니다.

장병 158명과 예배를 드린 후 '피자'와 '콜라'를 먹을 때 젊은 군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기념 촬영 후 군인들이 할렐루야교회 군선교팀 45명에게 '이기자'부대 배지를 정성껏 달아주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중한 하루,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 최상규 집사(해외선교팀), 손창국 집사(북한선교팀)



- 2017 해외선교헌신주간을 통해 1,087분이 월 1,900여 만원 신규 후원 작정
- 해외선교, 이슬람지역 학교 사역 및 교회 개척 등 16개 프로젝트에 사용
- 북한선교, 통일선교 선교기지 개척과 단체 및 교회 협력 등에 사용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선교후원 작정 시간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신규로 1,087분의 성도님들이 월 1,900여 만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담임목사님께서 2주간의 해외선교헌신주간을 선포하였고 해외선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윤상혁교수, 오대원목사, 원정아선교사 등 초청 강사들은 열방선교를 향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보내는 선교사, 후원 선교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담임목사님은 주일 설교와 '목자의 마음'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면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성도들은 해외선교에 월 1,500여 만원(817분), 북한선교에 월 400여 만원(270분)을 신규로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해외선교에서는 후원금으로 선교사의 사례비(생활보조비) 인상분(가정당 15~20만원/월)을 후원하며, 16개 프로젝트에 약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로는 올해 초 착공하여 내년 8월 개교 예정인 P국 대학의 도서관에 5,000만원을, 작년 12월에 설립예배를 드린 T국 개척 교회의 예배/교육/문화사역에 2,200만원, 동일 국가의 부흥청년센터에 1,440만원을 후원합니다. 또한 작년 8월 개원한 몽골 아가페기독병원의 혈액투석환자 치료에 필요한 운영비를 위해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케냐 이시올로 이슬람 빈민지역에 위치한 마샴바니소망학교에도 운영비와 담장 신축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인도의 출판사역 및 교회 개척, 온두라스 13개 지교회, M국 한국어 과정, 일본 재해지역 봉사, C국 청소년 찬양 페스티발, 태국 한국어교실, 케냐 슬럼사역 등에도 성도님의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북한선교에서는 통일민 사역을 하고 있는 6개 교회를 선정하여 매달 후원금과 함께 방문사역을 통해 동역자로서 위로와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통일선교단체를 선정하여 협력 및 지원을 통해 통일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선교를 담당하는 통일선교사들과 연합하여 북한 내지, 조중(朝中) 접경지역, 동남아 등지에서 선교센터를 구축하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협력선교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청년들의 통일선교에 대한 관심 증대와 통일 후 사역 준비를 위한 통일선교아카데미, 컴패션 등의 대외훈련사역 지원, 통일민 자녀들의 학습 지원, 통일민 자녀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 등의 사역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교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담임목사님 후원작정카드 권면의 말씀 중에서) 비록 선교현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헌금으로, 중보기도로 선교지를 후원하는 여러분들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추가로 후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해외선교사무실(031-780-9618, 배진영간사)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놀라워라~~
캄보디아에서 만난 할렐루야교회 셔틀버스

| 김명환 목사

오늘 아침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요. 늘 상처럼 화요일 오전에 프놈펜 왕립예술중고등학교 강의를 위해 집을 나와 막 찻길로 들어섰는데, 제 차 앞에 너무 낯익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앗~~!!! 바로 할렐루야교회 미니버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곳임은 물론 고국을 방문하면 늘 찾아가는 고향 같은 교회.

무엇보다도 '새찬양 축제사역'이 시작된 바로 그 교회! 그런데 그 할렐루야교회 셔틀버스 한 대가 바로 제 앞에서 마치 날 기다렸다는 듯 반겨주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프놈펜 제 집앞에서 말이지요! 마치 제 길을 인도하듯 바로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치 한국에 온 듯 느껴지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교회에서 받은 그 많은 사랑이 생각나며 마음이 감동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버스는 셔틀버스로 야탑역에서 교회까지 왕복하던 차였으니 저도 몇 번이나 타고 다녔던 차임이 분명했지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정신없이 그 버스를 따라 운전하며 도중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벌점 받을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버스는 한국에서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중고차로 캄보디아에까지 팔려 와 여기서는 또 캄보디아 사람들을 섬기고 있구나. 나의 삶은 과연 이 버스 정도라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 버스보다 못하면 안 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할렐루야버스를 아쉽게 떠나보냈습니다.

혹시 금년에 할렐루야교회에서 이곳 프놈펜에 무슨 사역을 시작하시려나 하는 예언적인 느낌도 가져봤지요. 할렐루야교회 다윗찬양대,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던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늘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시던 김상복 목사님, 이젠 4/14 동역자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국제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승욱 담임목사님과 허종학 장로님 등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교회를 멀리서나마 축복합니다!

김명환 목사는 15년 전 할렐루야교회 다윗성가대 지휘자로 섬기며 '전국 어린이 피아노 경연대회'를 시작한 분입니다. 이제는 '새찬양 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동남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 세계 35개 도시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며 엄청난 선교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장로회신학대학생들과 함께

의료선교사역 35년을 돌아보며

2017년 3월 두 번째 국내 의료선교봉사를 경기도 광주의 「세상의 빛 선교교회」(담임: 이현성목사)에 다녀왔다. 본 교회 의료선교 위원회가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한지도 35여 년이 되었고 세상의 빛 선교교회에 본 교회가 의료봉사를 한 지도 10여 년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름대로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보건의료인들이 주일 하루 쉬면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않은 만큼 전문인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여 초기멤버들은 몇 십년씩 봉사를 지속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홍보와 젊은 층 발굴 노력으로 이제는 사역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봉사자들이 많이 충원되어 더욱 젊음과 활력이 느껴졌다. 그래도 역사는 이어져야 하듯이 기도팀과 일부 파트는 초기 봉사자들이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세대 통합이 느껴진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전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어있는 만큼 요즈음의 의료선교지는 주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들이 모이는 곳들이다. 그래서 더욱 황금어장의 고기를 낚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열정적인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전해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것이 보람이라 하겠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무교, 가톨릭권, 이슬람권, 불교권도 있어서 기독교 선교에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되는 셈이다. 세상의 빛 선교교회에는 주로 필리핀근로자들(등록 100여 명)이 있으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체류하는 근로자들도 있어서 귀국하여도 믿음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년 현지에 가서 수련회를 개최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의료선교위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와 치유를 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가끔은 노동현장에서 많이 다쳐 수술이 필요한 경우 무료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의료선교 초기부터 참여하신 많은 봉사자들과 현지근로자들이 특히 감사해하는 부분이다.

35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故) 김유선 장로, 고(故) 박돈상 장로, 이순자 권사, 백기학 장로, 이창주 장로, 최경숙 권사, 홍순조 집사, 김정혜 권사, 한동업 안수집사께서 수고하셨고 그 외에 약사, 간호사, 총무팀, 기도팀, 미용팀 등의 숨은 노고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끝낸 후 교회 부근에서의 저녁식사는 늘 꿀맛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달란트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서정숙 권사(2교구)

세상의 빛 선교교회 성도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합심기도

예배하는 우리집

- 40 번째 가정 -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할렐루야! 모태 신앙인 하은(초6, 13세)이와 하영(초3, 10세)이는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예배하는 우리집'으로 가정예배 드리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예배를 건너뛰고 뜨거운 열정으로 접하게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하은이가 10살, 하영이가 7살 되던 어느날 무작정 아이들 아빠와 함께 식탁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횟수를 더해가면서 어수선하고 산만했던 가정예배가 가족 구성원 서로서로가 평온, 행복, 기쁨, 축복 등 영적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을 통한 기쁨과 치유, 기도를 통한 회개, 가장인 남편을 통한 축복.....이러한 은혜 덕분에 '이것이 과연 천국이구나' 하며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집'으로 드리는 가정예배의 장점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구절과 '바이블 스토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 등 각자의 생각을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예배를 즐거운 말씀 나눔으로 가득차게 합니다.

가정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겠지요. 우리 가정의 예배 필수품이 된 '예배하는 우리집' 사랑합니다!!!

이상철 · 손희정 집사(8교구)

함께 축하해 주세요!

2017년 5월은 할렐루야 신문사 창립 30주년입니다. 축하와 응원을 해주세요!

응모하신 내용을 신문사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각 10명에게 상품을 드리며, 채택 내용은 5월호 창간 기념호에 게재합니다.

(행사일 : '17.3.26 / 4.2 10시~14시)

① 나에게 할렐루야신문은 00000 이다. 왜냐하면 00000이기(하기) 때문에.

② '삼십주년' 또는 '교회신문'으로 사행시 짓기

응모 1 / 나에게 할렐루야 신문이란.....

나에게 할렐루야신문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하기) 때문에.

응모자 교구 및 소속

전화번호

응모 2 / 사행시 짓기('삼십주년' 또는 '교회신문')

응모자 교구 및 소속

전화번호

· 이 응모지를 이용하여 응모 가능합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 응모해 보세요!

이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 허정현 전도사(새꿈2 담당)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이사야 41:10

새꿈2에서는 4-5세 유아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온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색함과 생소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달에서 두 달, 혹은 그 이상의 적응 기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꿈2 예배자들은 어떻게 혼자서도 씩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새꿈2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 곧 목회자의 열정과 교사들의 헌신으로 어린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꿈2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새꿈2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궁금해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새꿈2 어머니들의 짧은 간증문과 4세 김은성 어린이의 찬양과 5세 어유나 어린이의 대표기도 유튜브 영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간증문과 영상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은성 어린이 찬양 영상
https://youtu.be/GjvneRH91jw
(또는 유튜브에서 "새꿈2 김은성 어린이" 검색)

어유나 어린이 대표기도 영상
https://youtu.be/x0swDhqppcM
(또는 유튜브에서 "새꿈2 어유나 어린이" 검색)

스마트폰 QR 코드 스캔 어플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박주안 집사(7교구), 김은성 어린이(4세) 母

3년 가까이 늘 나와 붙어있던 아들이 새꿈1부를 졸업하고 새꿈2로 올라가던 올해 1월, 졸업자 신청은 했지만 과연 엄마 아빠와 떨어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헤어질 때 울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이가 아직 공동체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에 그 불안감은 더 컸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새꿈1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먹고 참석한 예배는 TV 프로그램에 나올 법 한 목소리로 아이들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전도사님, 신나는 찬양 시간, 각 반마다 두 명의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까지, 언제쯤 아이를 떼어내면 될까 고민하며 함께 새꿈2 예배에 참석한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앞으로는 엄마 아빠 없이 새꿈2에 가겠다고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내가 못 보는 곳에서 우리 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는 궁금함은 매주 업로드 되는 예배 사진들을 통해 해소하고 있고, 걱정했던 눈물바람 없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는 아들을 보며 아이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린다.

이정민 성도(10교구), 어유나 어린이(5세) 母

작년 유나가 처음으로 새꿈2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유치원을 잘 다니고 있는 시기였는데도 엄마와 떨어져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두 주 정도 새꿈2 예배실 뒤에서 유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괜찮다 하시며 편하게 대예배를 드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신뢰가 생겼고 별 고민 없이 유나를 맡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유나는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암송도 곧잘 합니다. 집에서는 주기도문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주일에 들은 말씀에 대해 종종 질문을 합니다. 아직 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겨울수련회 이후 2017년 SP를 기대하며

| 마현빈 학생(새물결1)

'성령이여 임하소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번 겨울 수련회는 제게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SP이후 많이 해이해져 있던 저의 영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김사무엘 목사님과 윤현준 목사님, 이덕진 장로님, 저희 어머니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윤현준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그 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하네요.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는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실제로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기는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십니다. 수련회 때든 예배 때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성령님은 늘 우리 옆에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실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처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이 내 옆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못 본 것인지를 늘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련회 둘째 날 저녁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소중한 지체들이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했죠. 저는 그 동안의 죄에 대한 회개기도와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절박하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가장 열심히 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해 변화된 점을 꼽자면, 매주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저는 거의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교회에 습관적으로 그냥 출석했고, 찬양할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했고, 설교도 습관적으로 그냥 들었으며, 기도도 그냥 영혼 없는 기도를 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는지를 확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열릴 SP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기독교인의 책 읽는 습관

| 이병수 목사(5교구 담당)

얼마 전 교회 서점 주최로 크리스천 독서법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요약과 생각을 간추려 지면에 옮겨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독서법과 책 읽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책 읽기를 통해 기독교 교양이 생겨나고 영적 독서가 이루어질 때 생각(신앙)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IT의 기술의 발달로 종이책보다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가 편리함도 줄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며 사고방식을 얕고 가볍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 좋은 설교, SNS를 통한 기독교 정보로만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양서를 읽지 않는다면 신앙의 폭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책 읽기에 앞서 일반책 읽기의 유익을 얻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헌법학자 이석연의 '책, 인생을 사로잡다'에는 독서의 원칙을 '독서는 지식을 쌓는 수단이기보다는 독서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편을 제공해 주는 거대한 교량' 이라고 설명합니다. 책 읽기의 교과서 같은 모티머 애들러의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How to read a book)'에서는 독서의 수준을 단계별로 설명하는데, 독서의 기술은 운동과 같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수준을 끌어 올릴 때 통찰하는 힘이 커집니다.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성경 읽기와 묵상뿐 아니라 영적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기독교 교양인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이 책을 먹으라(Eat this Book)'에서 교과서가 되는 성경, 그 성경을 읽기 위한 선행 조건, 혹은 성경을 읽고 난 결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과 독서가 상호적이 되어야 하고, 몸짓과 말 그리고 상황의 작용이 독서를 삶에 동화되게 하고 삶을 독서에 동화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과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그것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영적독서(spiritual reading)를 렉치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합니다.

피터슨 목사님의 말로는 '렉치오 디비나'는 마치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거룩한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라고 설명합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어떠한 독서법보다도 조용한 시간을 할애하여 문자를 분석하며 소화시키는 독서법이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 독서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분별력을 갖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독과 정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읽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는 치우친 신앙의 책들을 읽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한 상태라고 여기지 못하고 오랜 신앙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신앙적 교만에서 이런 책을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고전으로 이미 검증된 책들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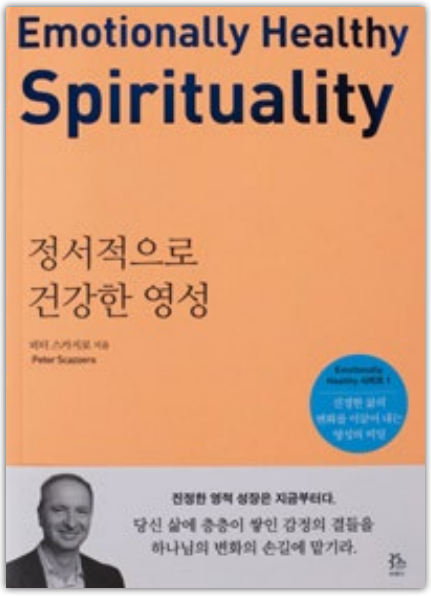
좋은 작가를 만나면 전작주의 독서법도 권해드립니다.

헌책 수집가 조희봉의 책 '전작주의자의 꿈'에서 전작주의란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통해 일관된 흐름은 물론 작품세계에 대한 통시 또는 공시적 분석을 하며 그 작가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독서법입니다. 분명하게 검증된 기독교 작가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스토트(John Stott) 목사님 같은 분의 책들이라면 그분이 쓴 어떠한 책도 문제없이 영혼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 작가 가운데서도 도덕적 문제를 일으켜서 책이 회수되거나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독서습관으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도널드 오피츠의 책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기독교 지성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며 실체가 없는 지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 지성은 항상 관계 속에 있으면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양서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치 매일 밥을 먹는 것 같아서 책을 옆에 두고 매일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교육들을 통해서 기분 좋은 자극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책 '그릿(Grit:끈기)'에서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 있다고 밝힙니다. 리더십 전문가 마셜 골드스미스 책 '트리거(triggers:방아쇠)'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멈추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책 읽는 좋은 습관, 그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고, 지혜의 샘을 곁에 두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Peter Scazzero), 두란노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길을 찾다!"

몸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영적 건강진단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데, 빨간불을 외면하고 전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열정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면 바다의 빙산처럼 물속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덩어리가 인생의 항로를 위협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언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식하지 못하는 정서적, 감정적 요소를 영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병수 목사

이달의 추천도서는 2층 도서관과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배우 강동원, 유승호와 신경희 목사에게 배운 RE:create

| 이세준 형제(원하트)

김상인 목사님이 우렁차게 부르짖었다. "RE:create!" 나는 묵상하다가 'RE:create'가 동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명사 'RE:creation'은 정적이지만, 동사 'Re:create'는 동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재창조'가 아니다. '재창조하다'라는 행동과 변화를 가리키는 동시에 '재창조하라'는 명령(형)이기도 하다. 정리해 보면, 'Re:create'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자는 운동이자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재창조를 내 삶에 구현할 수 있단 말인가? 불현듯 내가 만났던 배우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존재(being)'와 '행위(doing)'를 통해 재창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강동원의 존재와 유승호의 행위

고양시 일산, 중학교 3학년이던 나는 수업을 마치고 축구를 하다가 느지막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항상 오가는 골목에 접어들었는데 평소와 달리 북적거렸다. 여러 사람과 장비가 있었다. 사람의 시선, 카메라, 마이크,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그곳에는 배우 강동원이 서 있었다. 나와 친구는 강동원을 바라봤다. 멍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지나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영화다..." 내가 3년 내내 등하교하던 익숙한 길목이 강동원을 통해 한 순간 '영화 무대'로 거듭났다. 일상 공간을 영화 배경으로 만드는 주체는 '장소'가 아니라 배우의 '존재'라고 나는 막연히 생각했다.

스물다섯이 되던 해 겨울,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으로 생활했다. 같은 훈련소 선임으로 배우 유승호가 있었다. 5주차 주일이었다. 배가 고팠다. 교회에 가서 '가나파이'만 기다렸다. 교회의 의자는 세 개의 분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1분단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옆 2분단 끝자리에 유승호가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군종병들이 가나파이를 두 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3분단부터 하나씩 더 주었다. 불안했다. 내가 속한 1분단까지 올 것 같지 않았다. 예상대로 분배는 2분단에서 끊겼다. 1분단에 있던 나와 동기들은 불공평하다며 속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그때 유승호가 가나파이를 하나 둘 모아들더니 내게 말을 건넸다. "이거 드십시오." 무려 다섯 개였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우리는 부끄러웠다. 어떻게 하면 가나파이를 더 챙길지 궁리하던 우리는 부끄러웠다. 서른 명에 이르는 우리는 다섯 개의 가나파이를 잘게 쪼개어 나눠 먹으며 기뻐했다.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꾼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존재

2016년 8월에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로 선교를 갔다. 연탄을 날랐다. 네 시간이 흐르자 온몸이 쑤시고 더위 탓에 정신이 혼미했다. 나는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의문이었다. 그때 연탄을 끊임없이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신경희 목사님(둥지교회 담임목사)이 보였다. 그의 얼굴과 목, 팔에는 땀이 흐르고 그 위로 연탄가루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

후에 나는 신경희 목사님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본인이 장애를 가졌으면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하고 봉사했던 것이다. 그렇게 산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연탄을 나르면서 다리가 참 아팠을 텐데, 나보다 더 휴식이 필요했을 텐데, 그는 쉬지 않고 연탄을 날랐다. 그를 보고 있자니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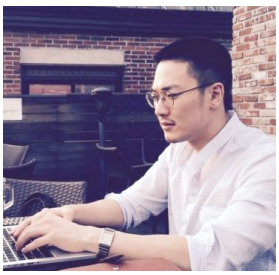
존재와 행위를 통한 재창조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재창조한다. 배우 강동원은 '인간 존재의 재창조성'을 가르쳐준다. '가치'를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다. 배우(존재)가 골목(장소)을 영화 무대(가치)로 만드는 것이지, 골목 그 자체가 사람을 배우로 만드는 게 아니다. 골목은 강동원이란 배우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품고 '탈바꿈', '변혁(transform)'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닌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다. 배우 강동원이 있는 그곳은 어디든 영화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곳은 (직장이나 캠퍼스나 가정이나 카페나 어디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재창조한다. 대구에서 연탄을 나르던 날 신경희 목사님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예수의 사랑을 봤다. 그의 삶은 어느 말이나 글보다 강력한 복음이었다. 강원도 화천에서 배우 유승호는 배고픔을 무릅쓰고 다른 병사들에게 가나파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승호의 행동을 통해 병사들은 감동했고 욕심을 버렸으며 가나파이를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다. 그것은 작은 기적이었고 '오병이어'의 현실 축소판이었다. 사랑 그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두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이 땅에 예수님을 표현하여 타인과 사회를 재창조한다.

'지금 여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함으로써 재창조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곳은 이 땅에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로 바로 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은 어디든지 교회이자 선교지로 거듭난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작은 몸짓은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만든다.

재창조의 무대 위에 우리는 서 있다. '믿음'을 통해 자기 존재를 재창조하자. 무대를 떠나지 말고 '지금 여기'에 꿋꿋이 서 있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함께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자. '믿음의 실천'으로 훌륭한 연기를 펼쳐 보자. 배우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되는 순간, 감독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완성하시리라.



대구에 도착한 첫날 신경희 목사님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동사의 집합체입니다." 그렇다. 사랑과 재창조는 모두 '동사'다. '존재(be)동사'와 '일반(do)동사', 그것은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당신이다.

살아나심의 은총

배정희 권사(6교구)

사방에서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는
하늘을 채우고 있었어라

사랑의 은총이
세상 모두에게
퍼져가고 있음에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기쁨의 찬양은
가슴 가슴에서 퍼져나오고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살아나셨네
찬양은 하늘로 퍼지고
있었어라

새로운 언약의 사실들을 안고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음이여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이여
사모하고 있음이여
할렐루야

배정희 권사 / 약력

첫 시집〈옥합을 열어〉(1981년)를 시작으로 〈함께 걷고 있다〉(2014년)까지 14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한국자유시인협회, 한국문예사조 문인협회 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전도회 회장역임

신앙문예는 성도들의 추천과 투고로 이뤄지는 코너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news@hcc.or.kr

부부사랑방을 소개합니다

| 이효정(6교구 탑21 부부사랑방장)

저희는 6교구 탑21 부부사랑방으로 네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오랜 기도와 응답으로 부부 사랑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여자 사랑방에 참석하고 있던 분과 주일 예배만 참석하던 우리집, 그리고 두 가정이 이사를 와서 모두 네 가정이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젊은 부부가 새로이 이사를 와서 다섯 가정이 되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내외는 당시 유치원생 딸이 있었고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저희는 3대가(1살에서 60대까지) 참석하는 사랑방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4교구로 이사 갔고 그 곳에서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요, 제일 열정이 많으신 장로님 내외분께서 항상 솔직하게 부족함까지도 드러내주시고 감싸주셔서, 방원들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말없던 남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의견(간증포함)을 말하고 새생명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저녁에 순서대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나눈 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지내온 삶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직장과 형편이 다르고, 연령과 살아온 배경, 그리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만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얼떨결에 참석하게 된 남자 집사들이 그 모임을 더 좋아합니다.

자연을 즐기기 좋은 때는 야외에 나가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즐기며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했으며, 축하할 일에 함께 축하해 주고 위로할 일에는 기도와 위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구 성경 골든벨 준비를 할 때 장로님과 남자 집사님들이 고시 준비하듯 몇 주간 서로 분량을 나눠 준비하고 함께 모여 노트북을 펼쳐서 문제를 내고 연습하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사랑방모임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 모양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가 함께 사랑방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작은 지체가 되게 하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방(원)을 자랑 또는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신문사에서 <우리 사랑방(원)을 자랑하고 싶어요> 코너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색적인 사랑방 소개도 좋고 칭찬해 주고 싶은 사랑방원 소개도 좋습니다. 맛난 음식을 잘하는 집사님, 소박한 이벤트로 사랑방원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집사님, 소리없이 감동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나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들, 소소하게 소풍 다녀온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랑방의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세요.
채택되신 사랑방(원)에게는 신문에 매월 게재되는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김승욱 담임목사와 교회중직자들 몽골 아가페기독병원 방문

김승욱 목사와 이창주 해외선교 담당장로 등 할렐루야교회 중직자들이 지난 3월 3일부터 4일 동안 몽골아가페기독병원과 몽골할렐루야교회를 다녀왔다.
이들은 몽골의 이영숙 선교사(고 박돈상 장로 부인)와 지미연 선교사 그리고 박관태 선교사(할렐루야교회 협력선교사/외과의사) 등을 만나 몽골아가페기독병원의 사역 현황을 보고 받고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김승욱 목사는 몽골할렐루야교회에서 드린 예배에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선교 여행에는 김승욱 목사와 이창주 장로 외에도 정영원 장로, 이홍주 선교사, 이황배 장로, 윤기백 장로 등이 동행했다.
몽골의 기온은 영하 15도를 오르내렸다.

김상복 원로목사,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김상복 원로목사는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드렸다. 김승규 은퇴장로와 김관상 장로 그리고 이정수 안수집사도 참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교회가 국민통합을 위해 기여해 달라"고 부탁한 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승규 장로는 법조인 후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반갑게 만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임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했다.

교회서점 이전 오픈

교회 서점이 2층 도서관 옆에서 2층 카페 옆(202-2호)으로 위치를 이전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모세선교회,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방문

할렐루야교회 모세선교회(회장 박실경 집사) 회원 등 12명은 지난 3월 7일 오후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방문했다. 을지대학교의 산학협력으로 세워진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할렐루야교회 주변 매화 마을 2단지에 위치해 있다.

치매환자, 노인, 장년들을 위한 일상생활 용품과 욕창방지 용품, 욕실용품 등이 전시돼 있어, 고령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고령친화제품들을 몸소 느껴볼 수 있다. 치매 체험관도 유익했지만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애 체험관도 인기였다. 무료이고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야탑동 221)
연락처 1644-0891

어와나(Awana) 성경퀴즈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지난 2월 인천숭의교회에서 경기지역 교회 약 75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16~'17 Awana(어와나)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성경퀴즈대회는 Sparks(스팍스, 7세~초2)와 T&T(티앤티, 초3~초6) 클럽이 참가하는데, 할렐루야교회 Awana는 모두 9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특히 Sparks의 양윤하 어린이는 스카이스토머(어와나 Sparks 클럽의 핸드북 중 가장 높은(마지막) 단계의 핸드북)에서 최고 득점을 했다.

메달을 수상한 어린이들이 더욱더 빛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노흥수 전도사(어와나, 새꿈3 담당)

2교구 남자성도 연합사랑방 모임 시작

2교구에서는 김민수 교구목사 주관으로 사랑방 학기 중 매월 2, 4째주 토요일 저녁에 남자 성도를 위한 연합사랑방 모임을 갖기로 하고 3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대치성전에서 그 첫 모임을 시작했다.

연령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그간 소원했던 남자 성도들끼리 교제와 영적 성숙을 목적으로 나눔을 가졌는데 첫 시작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신앙의 고수들답게 바로 진지하고 열성적인 의견교환을 하며 모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 다음 모임을 기대하게 하는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남자들만의 속 깊은 교제와 간증나눔을 통해 가정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첫 모임을 마무리하였는데 2교구가 가진 대치성전의 장소적 특성과 원년 교회멤버의 끈끈한 관계적 특성을 잘 살려 교구 내 남자성도의 역할을 고양하고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강호필 집사(2교구)

김건우 이선혜 집사 〈피자애〉 보정점 오픈

9교구 사랑5 사랑방의 김건우 이선혜 집사가 〈피자애〉를 오픈했다.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5-1 타워시티 1층 제 111호 피자애 보정점
문의전화 031)261-0045

교회 장묘 관련 유토피아 추모관 다녀와

할렐루야교회 성도 백여 명이 2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안성 일죽에 있는 유토피아 추모관의 할렐루야교회 전용 봉안당과 수목장 등을 둘러봤다. 차량으로 왕복 2시간 남짓 소요되었다.

유토피아 추모관 관계자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 해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의 경우 600만원이다. 이번에 신청한 성도들은 연간 6만원씩 영구적으로 관리비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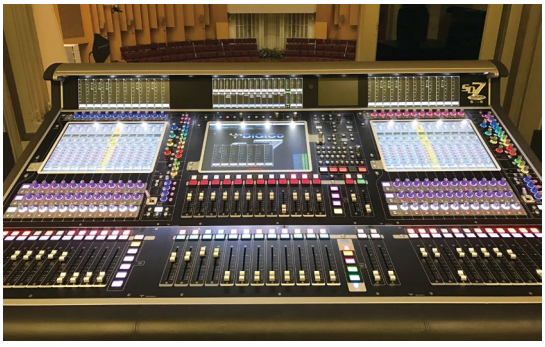
지구촌교회 전용관의 경우 이동원 원로목사님이 가장 낮은 코너에 예약돼 있었다. 할렐루야교회 사무국 관계자는 "김승욱 목사님도 가장 낮은 코너에 예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렐루야교회는 총 328기 중에 현재 213기를 신청해 별도의 전용관을 확보한 상태다.

유토피아 추모관에는 지구촌교회와 주님의교회, 베다니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전용관을 확보했고 신관도 증축하고 있다. 유토피아 추모관에는 천주교와 불교의 전용 추모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방송 음향장비 교체

지난 2월 3일과 5일 예배 시 할렐루야교회 음향장비 핵심부품 고장으로(평균사용연한 10년, 15년째 사용중) 3월 20일 스피커 프로세서 DSP엔진과 음향콘솔을 교체하였다.

비용은 약 3억여 원으로 교회방송장비 예산에서 지출하였고 3월 20일 설치와 세팅을 완료한 후 한 달간 시험튜닝을 거쳐 5월부터 정상 가동된다.



할렐루야신문 30주년 기념 워크숍

할렐루야신문 30주년기념 워크숍이 2017년 3월 5일 오후 1시 40분에 2층 외빈실에서 있었다. 신현규목사의 격려사와 분당우리지 편집장 공유진집사의 분당우리지 편집과 제작과정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교열과 교정에 대한 최신 Tool사용, 취재를 위한 노력, 편집후기 등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신문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여은구팀장의 30주년 기념 편집 기획에 관한 주제발표 후 워크숍에 참석했던 편집위원과 모니터위원들이 3개의 모둠으로 흩어져서 모둠별 토의를 가졌다. 각 모둠에서는 30주년 기념, 4,5월 교회력, 뉴젠, 젊은이, 파랑새 등에 관한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5월호 기획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워크샵을 마무리했다.

블레싱서밋 2017 봄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온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 그리고 가족을 초청합니다.

5월 17일(수) am 10:30 중성전
게스트 박모세와 어머니, 유엔젤보이스

진형식 기획초대전,

마할로 하와이(Mahalo Hawa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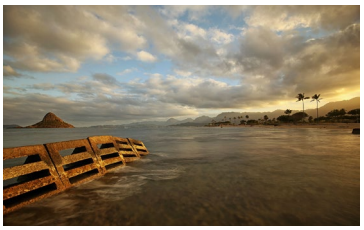
| 진형식 성도(할렐루야사진팀)

유학을 떠나는 아내와 함께 저는 2009년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여느 직장인처럼 일과 사람에 시달리고, 쉬는 날 없이 달려오던 제게 하와이 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면서도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또 한 번의 적응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품어 왔던 아내의 비전을 위해 무작정 떠났지만, 아름다운 하와이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들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그 중 한 분과 함께 투어(Tour) 사업을 시작하며 하와이로 여행오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많은 유학생 부부 생활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도 생활의 부담에 눌려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에게, 그 아름다운 자연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다시 보게 하시면서 삶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2015년 여름, 꿈만 같았던 6년간의 하와이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아내와 저는 그 동안 찍은 사진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작은 꿈을 품었습니다. 그 작은 생각마저도 흘려듣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4월 1일부터 14일간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들로 개인 초대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쉽지만은 않았던 유학 생활 동안 하와이 특유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가정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초대전 주제는 "마할로 하와이 Mahalo Hawaii" (Mahalo는 하와이어로 "감사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그 감사의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힌 사진 기술을 또 다른 섬김을 통해 기쁘게 봉사하고자 하여 할렐루야교회 사진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면을 통해 또 성도님들에게 제 사진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위로를 사진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진형식 기획 초대전

마할로 하와이(Mahalo Hawaii)

일시 : 2017 .04. 01~ 04. 14

장소 : 경기도 안성시 가사동15-65

보나카바 3층 Space+갤러리

우야튿튿

• 우리 일상의 따스하고 달콤한 이야기, 소중한 순간들의 사진,
가족, 친구, 이웃과의 정겨운 교제의 글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카톡 아이디 hccnews7809500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가 주세요."

추위를 막기 위해 목에 둘렀을 목도리, 손이 시려 꼈을 장갑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꼭 필요해서, 맘에 쏘옥 들어서 구매했을 텐데……. 잊어버렸음을 알고는 속상해 하며 여기저기 기억을 더듬으며 찾았을 다양한 품목의 물품들이 2층 사무국에 보관되어 있어요. 1년 정도 보관 전시했다가 사랑의 학교에 기증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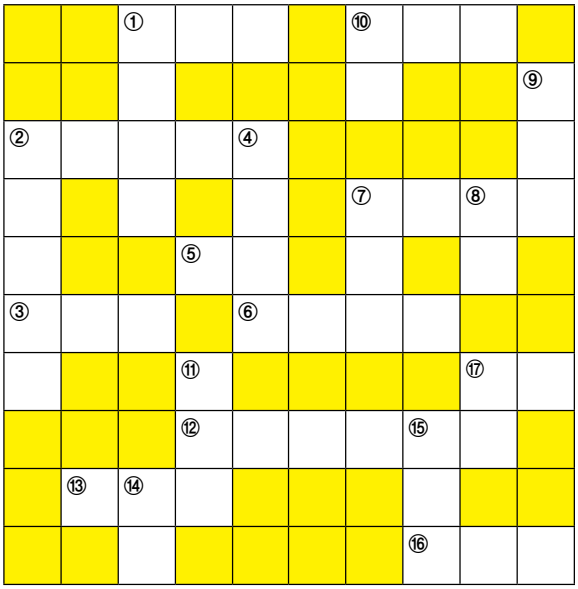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작은 거라도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알뜰히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이 희미한 기억 속 빛바랜 노트처럼 느껴지는 요즘이라 씁쓸해하며 물끄러미 분실물을 보는 중에, 검정색 보조가방을 잃어버려 찾으러 왔다며 울상짓는 하영이와 하임(새힘1) 자매가 어찌나 기특하고 귀엽던지요.

분실함의 물품들이 다 주인을 찾아 깨끗이 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퍼즐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Cross Words!

아래 퍼즐의 정답과 이름, 교구 및 연락처를 적어서 점선을 따라 잘라서 4월 23일까지 신문사(221호)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호에서 알려드려요.



응모자 :　　교구 및 소속 :

전화번호 :

▶가로 문제

① '곧은 자'라는 뜻의 단어로, 이스라엘에 대한 시명 또는 별명으로 보여진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읽어 드린 노래와 축복 중에 나오는 단어로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신32,33,사44).

② 바사(현재의 페르시아)왕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의 아들이며 그 역시 바사의 왕이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에게 상소했으며(스4) 왕후 에스더의 남편으로 그녀의 청을 받아 하만의 유대인을 향한 음모를 막는다(에1,2,3).

③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이며 레아에게서 난 여섯째 아들이다(창30,35,출1). 그는 한 지파를 이룬다(민1,신 27,33).

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며 아말렉의 어머니이다(창36).

⑥ 에브라임의 자손이며 베레갸의 아버지(대하28).

⑦ 로마의 한 주로 이곳의 대표적 도시로는 바울이 2차와 3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암비볼리, 네압볼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등이 있으며(행16,17,롬16,고후1,2,7,살전1,4,딤전1). 이 지역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한 적이 있으며 또 바울이 이곳을 떠나 아가야로 갈 때 유일하게 그를 후원하기도 했다(롬15,고후8,빌4).

⑩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의 한 사람으로 예수의 십자가 고난 현장을 지켜 보았으며 부활하신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갔다(막15,16).

⑫ '하나님이 말씀하심', '생존하심'이라는 뜻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받은 이름이다(창41).

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얍복강 상류 숙곳 동쪽 지역. 얍복과 숙곳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군사 상 중요한 지점의 나루터로써 이곳을 수비하는 망대가 있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이성 사람에게 떡을 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망대를 헐고 그 성 사람들을 죽였다(삿8).

⑯ 미스바 북쪽 기브온 지역의 성읍으로 그비라와 기랏여아림과 함께 있는 성읍이다(수9,스2,느7).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 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의 고향이기도 하다(수18,삼하4).

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이며 디블라임의 딸이다(호1). 이 여인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세로 문제

① 에브라임지파 눈의 아들로 본명은 호세아(민13:8)이며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회막 곁에 있었다(출33). 가나안에 보낸 12정탐꾼 중의 한 사람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주장했다(민13,14).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지도자.

②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들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대인의 성전과 삶을 재건하도록 했다. 또한 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을 재건케 했다(스4,6,7,8,느1,2,5,13)

④ 구약성서 2군데(다른 이름으로도 1번 더 나옴) 정도 나오는 나무로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던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으며(왕상19) 이 나무로 숯도 만들었다(시120).

⑦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헤브론으로 추정된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며 이곳에서 세 천사를 만났고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기도 했다(창13,14,18,23).

⑧ 12제자의 한 사람(마10,막3,눅6)이며 요한복음에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했다(요11,20,21). 주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다가 그 못 자국을 보고 믿었다(요20).

⑨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지파의 소년 중 한 사람이며 다니엘의 친구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종하기 위하여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려고 선택된 왕족이며 환관장에 의하여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사드락으로 고치게 되었다. 왕이 베푼 진미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단1).

⑩ 이스라엘 왕으로 야베스의 아들이며 무정부 상태인 이스라엘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가 1개월 후에 결국 므나헴에게 살해되었다(왕하15).

⑪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로 환관장에 의하여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메삭이라고 고쳤다(단1,2). 그 외에도 동명이인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숙부로서 거룩하지 못한 불을 드려 징계를 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성막에서 옮기는 일을 도운 사람 중 한 사람(출6,레10)과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 좌편에 섰던 자(느8) 등도 있다.

⑭ 의사이며 예수를 믿은 후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를 했다. 그는 데오빌로와 친분이 있으며 그를 위하여 복음서 중 한 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골4,딤후4,몬1).

⑮ 이곳은 가나안의 남방이며 브엘세바와 그 남쪽으로 펼쳐진 거친 사막 황무지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다(창13,20). 강수량이 적어 나무나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곳이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하고, 목축업도 겨울과 봄까지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있기 때문이다.

⑰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힘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는 대표적인 계층이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히브리 율법의 특징이라고도 보여진다(출22,신14,16,24,26,27,렘22). 선지자들도 그들을 친절하게 보살펴 줄 것을 가르쳤으며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잔인한 불의의 상징으로 그려졌다(사1,욥6,22,24,시94,사1,10,렘5,겔22,말3).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란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했으며(약1)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고 말씀하셨다.

출제 김정진 목사(7교구)

지난 호 정답 및 당첨자

	갈	릴	리						헬
	대		비			예			라
노	아		야	곱		레	위	지	파
	우	림				미			
	르		아	하	시	야		실	바
연			기						벨
합	비	세	스			수	델	라	
과		레		아	모	리		맛	
선		스	불	론		아		레	센
교								히	

지상희(원하트, 4024)　　김군자(2교구, 9466)
송민용(창장년, 2106)　　박순옥(3교구, 7217)
안성훈(새물결1, 9695)　　이고은(4교구, 7758)
김명희(1교구, 3479)　　정윤순(7교구, 9391)
이유화(2교구, 9226)　　김정자(10교구, 4779)

※주일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신문사(221호)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의 새가족입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등록하신 분

1교구 이혜영

1교구 이효정

1교구 한승호

3교구 김태현

3교구 박신현

3교구 오선자

3교구 이슬비

3교구 이지은

3교구 이창섭

3교구 정영진

3교구 최은지

4교구 강성환

4교구 강한나

4교구 구민경

4교구 김희정

4교구 나희진

4교구 정진연

4교구 최윤미

5교구 박승우

6교구 신진선

6교구 이경준

7교구 강금희

7교구 김수지

7교구 유명숙

7교구 유재덕

7교구 이신옥

8교구 김해옥

9교구 이한수

10교구 김겸덕

10교구 김정희

10교구 박은경

10교구 박정연

10교구 최창열

촬영 할렐루야 사진팀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 때문에 징계를 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으로 맞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해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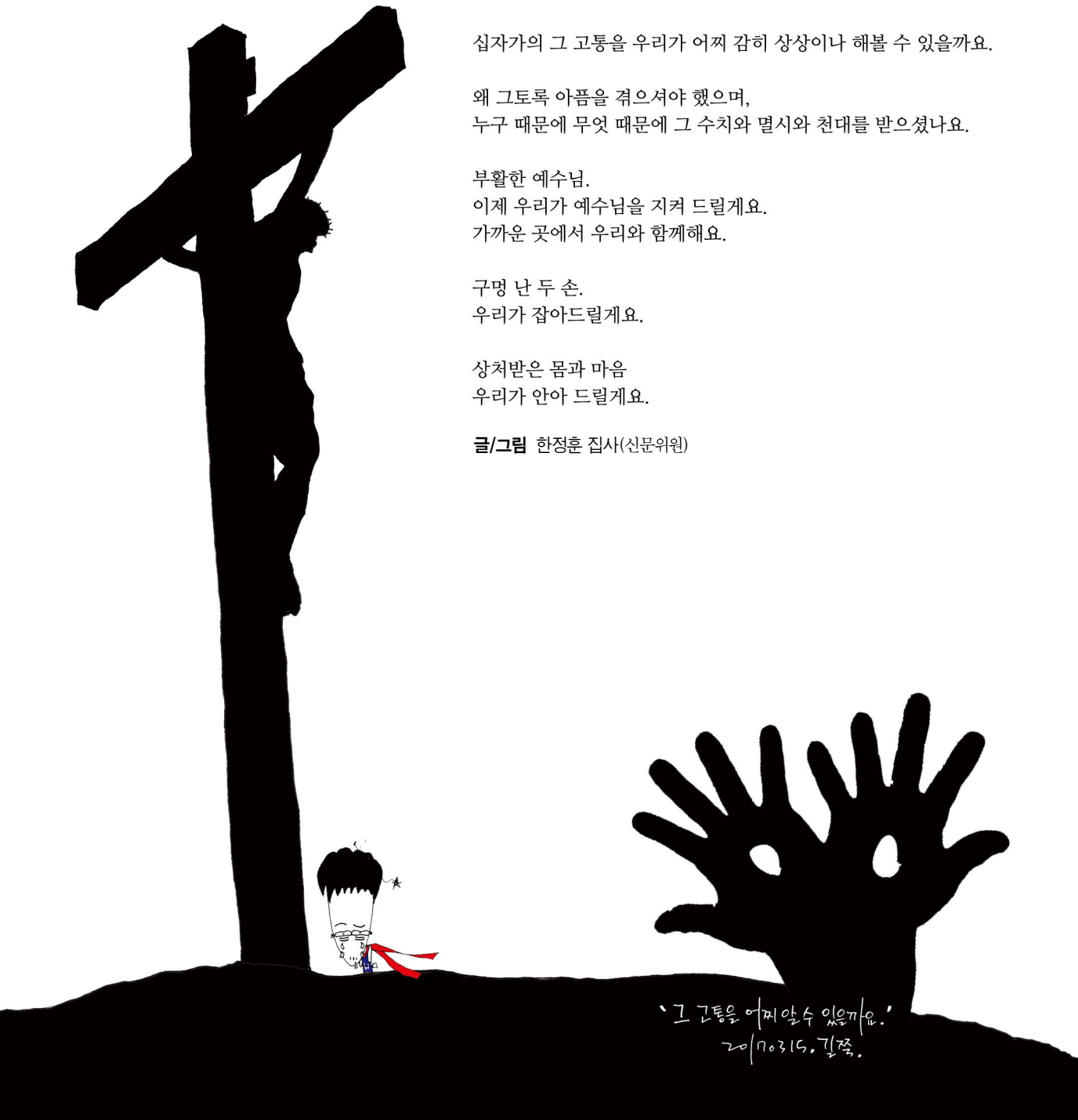
왜 그토록 아픔을 겪으셔야 했으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나요.

부활한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 드릴게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해요.

구멍 난 두 손.
우리가 잡아드릴게요.

상처받은 몸과 마음
우리가 안아 드릴게요.

글/그림 한정훈 집사(신문위원)



고난 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십자가를 살라!

월(4/10) 유장옥 목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에베소서 2:11~22)

화(4/11) 윤현준 목사

예수 그리스도 위에(마태복음 7:24~27)

수(4/12) 김민수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한복음 10:7~9)

목(4/13) 이병수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사도행전 20:24)

금(4/14) 고대영 목사

예수 그리스도처럼(히브리서 5:7~9)